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어려움과 극복 전략 연구

— 중국인 한국어 전공자를 중심으로

맹강 중국 대련외국어대학교 한국어대학 강사

* 본 연구는 중국 대련외국어대학교 2019년도 학부생 교육 개혁 중점 프로젝트인 ‘课程思政融入韩国语写作教学的模式探索’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것이다.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결론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논증적 글을 쓰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극복 전략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논증적 글쓰기는 학문 목적 학습자에게 필수적 장르이면서 아주 어려운 장르이기도 하다(Grabe & Kaplan, 1996).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는 TOPIK은 물론이고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김중섭·김정숙·이해영·김선정·이정희, 2010)에서도 필수 장르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한국어 교재에서도 논증적 글쓰기를 필수적으로 다루고 있다(이선영·박영지, 2016). 하지만 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라 하더라도 한국어 논증적 글을 작성할 때 부담이 크고(이선영·박영지, 2016: 150)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다(김현미, 2011: 42). 즉 논증적 글쓰기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에게 매우 중요하면서도 매우 어려운 장르이다. 이로 인해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홍혜준, 2008). 기존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논증적 글에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교육적 처치를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학습자들이 실제로 논증적 글을 쓸 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작성한 논증적 글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교육적 처치를 제안하는 것은 매우 의의 있는 것이지만 어려운 장르로서의 논증적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즉 학습자들이 잘 못하는 점에 주목하였지만 어려워하는 점을 살펴보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 학습자들이 논증적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어려움 극복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원인, 그리고 극복 전략을 밝혀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의 글쓰기 유창성과 수준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글쓰기 어려움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국어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래에서 연구대상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어교육에서의 연구는 대학생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나누어진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안상희(2012), 서수현·정혜승(2015), 윤철민·김해인(2017) 등이 있다. 안상희(2012)에서는 설문조사로 대학 신입생의 리포트 쓰기의 어려움을 살펴봤는데 ‘자료를 모아서 자신의 글로 재생산하는 것이 어렵다’, ‘글쓰기 자체가 어렵다’, ‘평소 글쓰기와는 다른 학술적 글쓰기이기 때문에 어렵다’가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서수현·정혜승(2015)에서는 설문조사로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글쓰기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교수자의 의도와 성향 파악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인식하였으며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 쓰기’ 등 글쓰기의 전반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

는다고 인식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주로 글쓰기 경험의 부족과 글쓰기 교육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윤철민·김해인(2017)에서는 설문조사로 대학생들의 리포트 쓰기 어려움을 살펴봤는데 대학생들이 리포트 쓰기 과정에서 계획하기, 작성하기, 작성 환경, 독자 고려 등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최진아(2018)에서는 반구조화 인터뷰로 대학생 필자가 보고서 쓰기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문제 해결 전략에 대해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여 쓰기 어려움을 전후맥락, 인과적 조건, 중심 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 6 가지 범주로 구조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쓰기 자체에 대한 교육은 물론이고 작문 과정에서의 능동적인 상호작용과 다양한 자료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초·중·고등학생의 쓰기 어려움에 관한 연구는 장은섭(2014), 송정윤·김경환(2016)이 대표적이다. 장은섭(2014)에서는 설문조사로 초·중·고등학생들의 쓰기 어려움을 살펴봤는데 ‘내용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표현하기’ 등 측면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지만 ‘내용 생성하기’는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송정윤·김경환(2016)에서는 개방형 설문으로 초·중·고등학생의 글쓰기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초·중·고등학생의 글쓰기 어려움은 ‘내용 생성하기에 대한 막막함’, ‘내용 구성하기와 관련한 어려움’, ‘글쓰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 ‘주어진 쓰기에 대한 부담감’, ‘과제 장르에 따른 어려움’ 5가지로 확인되었다.

한국어교육에서 논증적 글쓰기에 관한 연구는 학습자들의 쓰기 텍스트와 학습자들의 쓰기 과정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중국인 학습자의 쓰기 텍스트에 관한 최근 연구로는 조인옥(2014), 제효봉(2015), 맹강(2018) 등을 들 수 있다. 조인옥(2014)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논증적 텍스트에 나타난 ‘논거’를 살펴보고 ‘스토리 논거’를 사용하는 것이 중국인 학습자의 특징이라 밝혔고 제효봉(2015)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논증적 텍스트의 조직과 표현에 나타난 모국어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맹강(2018)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논증적 텍스트에 반영된 개입을 살펴보고 중국인 학습자가 단성적

목소리를 선호하고 독자 입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과정에 관한 최근 연구로는 전형길(2016), 최주희(2017) 등을 들 수 있다. 전형길(2016)에서는 한국어 학습자가 쓰기 과정에서의 수정 양상을 살펴보고 학습자를 계획 기반 수정 유형과 산출 기반 수정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밝혔다. 최주희(2017)에서는 참조 모델 활용과 조력자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교육 내용과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학습자들이 생성한 쓰기 텍스트나 쓰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교육 내용 혹은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학습자들이 글쓰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지 못했다. 한국어 교육에서 쓰기 어려움에 관한 연구는 유나(2017)가 있다. 유나(2017)에서는 심층면담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학위 논문 쓰기 학습 과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국인 학습자는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학습에서 언어적, 정의적,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그 원인으로는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으로 귀결하였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전략으로는 자기주도적 학습, 모국어의 힘을 빌리기, 외부 도움 찾기, 정서 조절하기 등이 있었다.

위에서 논의한 바에 의하면 기존 연구는 국어교육에 집중되고 있으며 한국어교육에서 쓰기 어려움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어 교육에서 논증적 글쓰기에 관한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생성한 텍스트의 문제점을 살펴보거나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생성하거나 학문 목적 쓰기를 학습하는 과정을 관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잘 못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잘 못하는 것 외에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점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 글쓰기 어려움에 관한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주로 설문조사나 인터뷰, 심층면담, 근거이

론 등이 있었다. 설문조사나 인터뷰, 심층면담은 학습자가 쓰기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으로 보는 데 무리가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와 인터뷰, 그리고 심층면담은 모두 학습자가 과거에 글을 쓸 때의 어려움을 회상한 것에 접근하는 것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습자들이 글 쓰기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학습자가 글을 쓰는 당시에 느끼는 어려움을 살펴보기 위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바로 적으라고 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학습자가 실제적 맥락에서 글을 쓰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더욱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중국 모 4년제 대학교 한국어과 2019학년도 2학기 <한국어 쓰기입문> 과목을 수강하는 3학년 1학기 학습자 32명이다. 이는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 경험, 한국어 수준,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경험을 고려한 것이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중국인 학습자는 같은 교육 과정을 거쳐 학습 기간은 2년 3개월이고 학습 경험이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의 한국어 수준은 대부분 TOPIK 5급에 해당되고 잘하는 학습자는 TOPIK 6급에 해당되며 못하는 학습자는 TOPIK 4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의 교육 과정으로 추정된 것이다. 중국의 4년제 대학 한국어 교육 과정으로는 1학년은 TOPIK 1, 2급, 2학년은 TOPIK 3, 4급, 3학년은 TOPIK 5, 6급, 4학년 1학기¹⁾는 최상급에 각각 해당된다.²⁾ 즉 본 연구의 참여자는 논증적 글을 쓰는 기본적 언어 능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쓰

기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경험도 거의 없었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의 한국어 학습 경험,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경험은 높은 동질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쓰기 과제 및 인터뷰 설계

선행연구의 작문 과제를 살펴보면 조인옥(2014)에서는 주제와 분량, 혼다 유나(2016)에서는 주제, 분량, 시간, Enkhtuya(2017)에서는 주제와 상황을 고려해서 설계하였다. 즉 선행연구에서 주제, 분량, 시간, 상황 등 요소만 고려하였으며 자료 검색과 사전 사용 허용 여부에 대한 고려가 안 보였다. 이는 과제로 인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료 검색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학습자들이 근거를 생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질 수 있으며 사전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쓰기 주제에 관한 어휘를 몰라서 표현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생기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자료 검색과 사전 사용 허용 여부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본고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실제적 상황에서 글을 쓸 때 겪는 어려움과 극복 전략을 살펴보기 때문에 쓰기 과제 설계 시 쓰기의 실제성과 중국인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외에 중국에서의 4년제 대학 한국어 학습자는 학문 목적 학습자로서 학문 목적 쓰기에 필요한 기능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자료 검색과 사전 사용 허용 여부, 쓰기의 실제성, 중국인 학습자의 특성, 학문 목적 쓰기에 필요한 기능을 모두 쓰기 과제

-
- 1) 4학년 2학기에는 수업이 없다.
 - 2) 실제로 2학년 2학기에 TOPIK Ⅱ에 응시한 학습자는 3명이고 2명은 4급에 합격하고 1명은 5급에 합격하였다. 2학년 2학기에 TOPIK Ⅱ 4급에 합격하는 것은 중국 교육 과정의 평가 요구에 충족한 것이며 5급에 합격하면 우수 수준이다. 3학년 1학기에 TOPIK Ⅱ를 응시한 학습자는 5명이고 1명은 4급에 합격하고 4명은 5급에 합격하였다. 나머지 24명은 모두 응시하지 않았다.

에 반영한 연구는 맹강(2018)이 있다. 이 외에도 맹강(2018)에서는 쓰기 과제 설계의 자세한 원리와 지시를 제시하였다. 이를 감안해서 본 연구는 맹강(2018)을 바탕으로 쓰기 과제 설계 고려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1〉 쓰기 과제 설계 고려 요소(맹강, 2018: 25)

과제 구성 요소		요구
쓰기 과제의 일반적 구성 요소	장르	예상 독자를 설득하는 글
	주제	사회적 이슈: 체벌, 조기 외국어 학습 주제 제시 시 주제와 관련 짧은 기사를 같이 제시한다.
	독자	보편독자
	시간	시험 상황이 아니라서 시간 제한 없다.
	분량	800자 내외
학문 목적 쓰기의 기능	요약하기, 환원하기, 분석 및 평가하기	자료 인용 시 요약·환원해서 사용하고 자신의 분석과 평가가 들어야 한다.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하기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을 포함한다.
	찬반 논의하기	주어진 주제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을 선택한다.
기타	사전 사용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네이버 온라인 사전 사용이 가능하다.

〈표 1〉과 같이 쓰기 과제의 구성 요소를 크게 쓰기 과제 구성의 일반적 요소와 학문 목적 쓰기에 필요한 기능으로 나누었다. 〈표 1〉에 제시된 쓰기 과제 구성의 일반적 요소는 쓰기 과제 구성의 필수적 요소로 볼 수 있으며 학문 목적 쓰기의 기능들은 학술 논문 쓰기의 각 부분에 꼭 필요한 기능들이다(맹강, 2018). 이와 같은 요소 중에서 설명해야 할 것은 쓰기 주제이다. 쓰기 주제는 ‘체벌’과 ‘조기 외국어 학습’으로 선정했다. 이 두 가지 주제는 중국인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에 관한 선행연구³⁾에서 사용되었고 중국과 한

3) ‘체벌’은 조인옥(2014)의 작문 주제이며 ‘조기 외국어 학습’은 맹강(2018)의 작문 주제이다.

국에서 모두 사회적 이슈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 주제를 선택한 것은 학습자들이 쓰기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충분히 노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어려움 극복 전략을 제시하려면 학습자들의 쓰기 어려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어려움을 겪는 원인, 어려움 해결을 위한 요구 등을 알아보는 인터뷰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인터뷰는 반구조화 인터뷰이고 학습자들이 적어 둔 어려움(학습자들이 적어 둔 어려움을 더 깊이 있게 알아보기), 어려움을 겪는 원인, 받고 싶은 어려움 극복 전략 지도로 구성되었다.

3. 자료 수집 절차 및 방법

자료 수집은 1주일의 시간 간격을 두어 2019년 12월 9일과 16일에 두 단계를 거쳐 작문과 쓰기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극복 전략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그 어려움과 극복 전략을 적어두고 글을 완성한 후 작문 및 어려움과 극복 전략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였다. 글쓰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극복 전략을 모두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냥 어렵다’, ‘글쓰기가 싫다’, ‘쓰기 과제 파악하기가 어렵다’, ‘자신의 생각을 한국어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 ‘모르는 단어를 네이버 사전을 통해 찾았다’, ‘네이버를 통해 필요한 근거를 찾았다’ 등 예시를 보여 주면서 안내해 주었다. 예시를 참고하여 글쓰기 과제를 받을 때부터 글을 완성하고 제출할 때까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중국어나 한국어로 적어두라고 하였다.

작문과 글쓰기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극복 전략을 수집하고 나서 반구조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에 학습자들이 적어둔 어려움을 회상할 수 있도록 먼저 해당 학습자가 적어둔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그 다음에 적어 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무엇

인지, 받고 싶은 어려움 극복 전략 지도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다. 인터뷰는 인터뷰를 응해 준 학습자 15명에 한해 위챗(WeChat)⁴⁾으로 실시하였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표현하려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터뷰는 중국어로 진행하였다.

4. 쓰기 어려움과 극복 전략 분석 방법

쓰기 어려움과 극복 전략의 추출은 두 단계를 거쳐 하였다. 1차적으로 학습자들이 적어 둔 내용에 따라 쓰기 어려움을 기록해 두었다. 다음과 같은 예시로 살펴보자.

(1) CKL24⁵⁾:

어려움: 写长句子困难。(긴 문장을 쓰는 것이 어렵다.) → 문장

극복 방법: 使用翻译软件。(번역 앱을 사용한다.) → 번역 앱 사용

(2) CKL21:

어려움: 词汇量不够, 想写的句子单词不会。(어휘량이 부족하고 쓰고 싶은 단어를 모른다.) → 어휘

극복 방법: 查不会的词。(모르는 단어를 찾는다.) → 사전 찾기

(3) CKL21: 写作时用的都是最简单和最基本的语法结构, 不会使用语法。(글을 쓸 때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문법 구조를 사용하였고 문법 사용을 잘하지 못한다.) → 문법

위에 제시된 예와 같이 1차적으로 학습자들이 적어 둔 내용에 따라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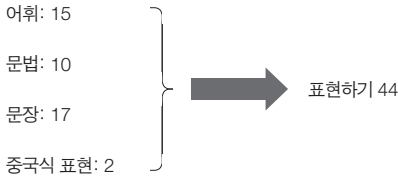
4) 위챗은 중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채팅 앱이다.

5) 'CKL24'는 24번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본 연구의 참여자)를 가리킨다. CKL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Chinese Korean Learner)'를 가리키며 '24'는 연구 참여자의 번호를 가리킨다.

려움과 극복 전략을 추출해 보았다. ‘긴 문장을 쓰는 것이 어렵다’를 통해 CKL24는 문장 생성에 어려움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 어려움을 ‘문장’으로 표기하였다. 극복 방법으로는 ‘번역 앱을 사용한다’인데 이를 ‘번역 앱 사용’으로 기록해 놓았다. 예(2)의 경우, ‘어휘량이 부족하고 쓰고 싶은 단어를 모른다’를 ‘어휘’로 기록해 주었고 ‘모르는 단어를 찾는다’를 ‘사전 찾기’로 기록해 두었다. 예(3)의 경우, ‘글을 쓸 때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문법 구조를 사용하였고 문법 사용을 잘하지 못한다.’의 키워드는 ‘문법’이라서 ‘문법’으로 기록해 주었다. 이와 같이 1차적인 분석을 마친 후 쓰기의 어려움들을 범주화해 보았다.⁶⁾

쓰기 어려움의 범주화는 장은섭(2014), 서수현·정혜승(2015), 송정윤·김경환(2016) 등을 참고하였다. 쓰기 어려움에 대해 장은섭(2014)에서는 ‘내용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로 범주화하였고 서수현·정혜승(2015)에서는 ‘과제 파악하기’, ‘자료 찾기’, ‘교수자의 의도와 성향 파악하기’, 그리고 글쓰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 쓰기’를 언급하였다. 송정윤·김경환(2016)에서는 인지적 요인(내용 생성하기, 내용 구성하기, 표현하기, 수정하기), 정의적 요인(막연한 거부감, 평가부담감, 쓰기습관, 쓰기가치, 쓰기선호, 쓰기 효능감), 과제·환경적 요인(과제 장르, 과제 분량, 과제 작성 시간, 과제 부과 방식, 쓰기 매체, 자료 읽기, 독자 고려), 기타(문식 경험, 필체, 신체적 고통)로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어려움을 참고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어려움을 귀납적으로 범주화하였다. 일차적으로 추출된 어려움을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각 어려움 범주에 귀속시키고 빈도수를 기록하였다. 아래의 예시를 살펴보자.

6) 실제로 학습자들이 적어 둔 극복 전략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극복 전략에 대한 2차적인 분석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림 1〉 어려움의 범주화

〈그림 1〉에서 보듯이 1차적으로 추출된 ‘어휘’, ‘문법’, ‘문장’, ‘중국식 표현’은 선행연구에서 ‘표현하기’ 범주에 귀속시켰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어휘’, ‘문법’, ‘문장’, ‘중국식 표현’을 ‘표현하기’에 범주화시켰다. 또한 ‘표현하기’의 각 하위 범주의 빈도수를 기록하여 총 빈도수를 산출하였다. 이처럼 두 단계를 거쳐 중국인 학습자의 쓰기 어려움을 추출하였다.

인터뷰 자료는 전사해서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분석할 때 인용하였다. 학습자들이 받고 싶은 어려움 극복 전략 지도에 관한 내용은 키워드를 추출하여 귀납적으로 분류해서 교육적 시사점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쓰기 어려움을 추출한 후에 각 어려움의 출현 빈도를 산출하여 분석하고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논증적 글쓰기 교육에의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다.

1. 개관

중국인 학습자들이 쓰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귀납적으로 추출한 결

과, 중국인 학습자가 겪는 어려움은 주로 송정윤·김경환(2016)에서 제시된 인지적 어려움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구성하기’, ‘표현하기’가 나타났는데 각 어려움의 출현 빈도수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쓰기 어려움 개관

어려움	빈도수	비율
계획하기	12	11.1%
내용 생성하기	24	22.2%
내용 구성하기	28	25.9%
표현하기	44	40.7%
합계	108	100%

<표 2>를 살펴보면 중국인 학습자들이 논증적 글을 쓰는 과정에서 ‘표현하기’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은 것을 알 수 있다. ‘내용 구성하기’와 ‘내용 생성하기’는 그 뒤에 이어 유사한 빈도로 나타났다. ‘계획하기’ 어려움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로 글을 쓸 때 중국인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한국어로 표현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내용 구성하기’와 ‘내용 생성하기’는 모국어와 외국어로 글을 쓸 때 두루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장은섭(2014), 서수현·정혜승(2015), 송정윤·김경환(2016) 등 모국어 필자의 글 쓰기 어려움에 관한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장은섭(2014)에서는 ‘내용 생성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것이라고 하였으며 송정윤·김경환(2016)에서는 ‘내용 생성하기’와 ‘내용 구성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밝혔다. 서수현·정혜승(2015)에서는 ‘표현하기’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내용 계획하기’도 모두 높

은 빈도로 나타났다.

송정윤·김경환(2016)에서는 쓰기의 어려움을 인지적 요인, 정의적 요인, 과제·환경적 요인, 기타 요인으로 범주화하였는데 본 연구의 중국인 학습자들이 주로 인지적 어려움을 겪었고 정의적 어려움과 과제·환경적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쓰기 과정에서의 어려움의 기록 방법을 안내할 때 ‘글쓰기가 싫다’와 같은 정의적 어려움을 예시로 제시해 줬는데도 정의적 어려움에 관한 내용을 전혀 적어 두지 않았다. 그 대신 인지적 어려움만 적어 두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인 학습자가 정의적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글을 써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물론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구성하기’, ‘표현하기’와 같은 인지적 어려움을 겪기 때문일 것이다. 과제·환경적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쓰기 과제가 명확한 지시를 제시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 어려움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계획하기

‘계획하기’에 관한 어려움은 주로 쓰기 과제를 받고 글의 구상을 할 때 겪었다. 학습자들이 적어둔 계획하기 어려움을 살펴보자.

CKL20: 写议论文时, 思路不是很明确, 对于要写的内容没有一个明确的框架。(논증적 글을 쓸 때 글의 구상이 명확하지 않고 쓸 내용에 대한 명확한 틀이 없다.⁷⁾)

CKL21: 对于这个话题想法比较少, 不全面, 不知道该怎么下笔。(이 화제에 대한 생각이 적고 전면적이지 않으며 어떻게 쓰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CKL31: 确定题目和中心比较难。(제목과 중심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7) 번역은 모두 연구자가 한 것이다.

학습자들이 적어둔 어려움을 살펴보면 ‘어떻게 쓰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글의 구상이 명확하지 않고 쓸 내용에 대한 명확한 틀이 없다’, ‘제목과 중심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등과 같이 글의 구상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음 <인터뷰 자료 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계획하기’ 어려움을 겪은 학습자는 그다지 많지 않은데(11.1%) 이는 글 구상 능력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이며 한국어 능력의 부족과 관련이 약하고 이와 같은 학습자는 모국어나 외국어로 글을 쓸 때 모두 계획하기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인터뷰 자료 ①>⁸⁾

연구자: 첫 번째 어려움을 보면 ‘이 화제에 대한 생각이 적고 전면적이지 않으며 어떻게 쓰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적었는데 왜 그랬죠?

CKL21: 그냥 이 화제에 대해 잘 모르니까 막상 글쓰기를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글의 구조를 구상할 때 좀 어려웠어요.

연구자: 그렇군요. 그럼 중국어로 글을 쓸 때도 그래요?

CKL21: 네, 그래요.

연구자: 혹시 한국어로 써야 돼서 그런 건 아닌가요? 중국어는 모국어니까 더 유창하게 자연스럽게 쓸 수 있고 한국어는 외국어니까 표현할 때 뭔가 좀 어려워해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건 아닌가요?

CKL21: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무엇을 써야 할지, 어떻게 논리적으로 시작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밀줄은 연구자)

<인터뷰 자료 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CKL21은 글의 구조를 구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은 언어 때문이 아니라 모국어와 한국어로 글을 쓸 때

8) 인터뷰 자료의 번역은 모두 연구자가 한 것이고 번역할 때 ‘음’, ‘어’와 같은 담화표지를 삭제하였고 핵심 내용만 제시하였다.

모두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계획하기’의 극복 전략을 살펴본 결과 모두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내용 생성하기

논증적 글쓰기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내용 생성하기 어려움을 분석할 때 Williams & Colomb(2007/2008)의 논증구조를 참고하였다. Williams & Colomb(2007/2008)의 논증구조는 주장, 이유, 근거, 전제, 반론 수용과 반박이 포함되어 있다. 내용 생성 어려움을 추출할 때 이를 참고하였다. 전제는 보통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추출할 때 생략했으며 ‘주장’은 계획하기 단계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계획하기에 귀속시켰다. 또한 학습자들이 이유와 근거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이유’를 적었든지 ‘근거’를 적었든지 모두 ‘근거’로 보았다. 학습자들이 적어둔 ‘이유’는 실제로 ‘근거’를 말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출한 결과, ‘내용 생성하기’ 어려움은 주로 ‘근거 생성하기’, ‘반론 생성하기’가 있는데 빈도수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내용 생성의 어려움

내용 생성의 어려움	빈도수	비율
근거 생성하기	22	91.7%
반론 생성하기	2	8.3%
합계	24	100%

<표 3>에 의하면 ‘내용 생성하기’ 어려움은 주로 ‘근거 생성하기’ 어려움이고 ‘반론 생성하기’ 어려움은 많지 않았다. 실제로 학습자들이 적어둔 어려움을 살펴보자.

CKL01: 找具体资料困难, 更多的还是自己的想法。(구체적 자료를 찾기 어렵고 주로 자신의 생각을 썼다.)

CKL02: 引用的话和事例少, 对于体罚也不好找相关数据。(의견이나 사례를 많이 인용하지 못하고 체벌에 대한 데이터도 찾기 어렵다.)

CKL05: 查找和引用数据有些困难, 无法让文章显得更有说服力。(데이터를 찾거나 인용하는 것이 어려워 글을 더 설득력이 있게 쓰지 못한다.)

CKL11: 写作需要的数据资料搜集困难。(글을 쓰는 데 필요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CKL12: 找不到有力的事实根据, 很多凭个人臆测。(설득력이 있는 사실 근거를 찾지 못해 개인적 추측을 쓰는 경우가 많다.)

CKL13: 事实证据太难找。(사실 근거를 찾기 어렵다.)

CKL16: 在引用一些专家的研究结果及主张时, 对于NAVER的依赖性有点大。(전문가의 연구결과와 주장을 인용할 때 주로 네이버에만 의지한다.)

CKL28: 知识面太窄, 对这种社会性问题认识不足, 写不出强有力的根据。(지식 폭이 좁아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설득력이 있는 근거를 쓰지 못한다.)

위에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학습자들이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부분 학습자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없고 CKL01과 CKL12처럼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나 추측을 근거로 활용하였다. 실제로 학습자들이 작성한 글에 반영된 근거를 통계한 결과, 주제가 ‘체벌’인 경우, 개인 추측 근거는 29.6%를, 개인 생각 근거는 24.3%를, 일반 상식 근거는 28.4%를 차지하였다. 주제가 ‘조기 외국어 학습’의 경우, 개인 추측 근거는 28.2%를, 개인 생각 근거는 18.6%를, 일반 상식 근거는 32.7%를 차지하였다. 개인 추측 근거와 개인 생각 근거, 그리고 일반 상식 근거는 어떤 객관적 자료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해 낸 것이다. 즉 객관적 자료가 아닌 자신이 생각해 낸 근거는 각각 82.3%와 79.5%나 차지하였다. 이것도 학습자들이 근거 생성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음을

말해 줄 수 있다. 자료 검색이 허락되지 않았다면 학습자들이 자신이 생각해 낸 근거로 논증할 수밖에 없겠지만 자료 검색이 분명히 허락되어 있어도 객관 자료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였다.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논증적 글에 반영하는 능력은 학문 목적 글쓰기에 꼭 필요한 것인데 중국인 학습자는 정보 수집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⁹⁾

〈표 3〉에 의하면 ‘반론 생성하기’의 빈도수는 2건으로 8.3%밖에 차지하지 않았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반론 생성하기’의 어려움을 겪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 학습자들이 작성한 글을 보면 반론 수용과 반박이 포함된 글은 각각 25%(체별)와 43.75%(조기 외국어 학습)이었다. 즉 절반 이상의 학습자가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을 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조인옥(2014), 제효봉(2015), 맹강(2018) 등에서도 방증해 줄 수 있다. 조인옥(2014), 제효봉(2015)의 쓰기 과제에는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을 포함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을 쓰지 않았을 수도 있으나 맹강(2018)과 본 연구의 쓰기 과제에는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을 꼭 포함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학습자들이 이를 포함하지 않은 것을 보면 예상 반론을 쓰지 않은 원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다음 인터뷰 자료를 살펴보자.

-
- 9) 이에 대해 익명의 심사위원은 “이는 학습자의 ‘정보 수집 능력의 부족’이라기보다 한국어 정보를 어디에서 어떻게 검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도나 안내가 부재했던 원인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하여 중국어로도 작문을 수집하고 결과를 비교해 보라고 제안하였다. 물론 이런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다. 이는 〈인터뷰 자료 ⑤〉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인터뷰 자료 ④〉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주제 친숙도, 근거 설득력에 대한 중국인과 한국인의 인식 차이 등의 영향을 받아 정보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한국어 정보 검색 지도나 안내의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중국어와 한국어로 글을 쓸 때 어려움이 다른지는 별도의 문제가 되어 후속연구에서 심사위원의 제안을 반영해 보도록 한다.

〈인터뷰 자료 ②〉

연구자: 쓰기 과제에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을 꼭 포함하라고 하였는데 왜 반박을 포함하지 않았어요?

CKL24: 제가 깜빡했을 것 같아요. 이런 습관이 잘 없어서요.

연구자: 왜 그런 습관이 없죠?

CKL24: 고등학교 때 (중국어로) 논설문을 쓸 때 보통 어떤 화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고 예시로 논증한 다음에 마무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을 쓰는 습관이 없어요.

연구자: 그런데 쓰기 과제에 꼭 포함하라고 했는데...

CKL24: 네, 그렇긴 하지만 그런 습관이 없어서 쓰다가 깜빡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자료 ③〉

연구자: 쓰기 과제에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을 꼭 포함하라고 하였는데 왜 글에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증만 있고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이 없었죠?

CKL08: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상대방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게 좀 미안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제 생각은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보여 주고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우리의 생각이 다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합축적인 의미는 제 주장이 합리적이고 상대방의 주장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전달할 수 있어요. 자신의 주장을 잘 논증하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연구자: 그렇군요. 그러면 상대방의 체면을 고려해서 그런 거네요?

CKL08: 네, 또 하나의 원인은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면 뭔가 주장이 명확하지 못한 글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주장도 전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 아닌데 상대방 주장의 합리성도 언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쓰다가 제 주장이 도대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못한 글이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자료 ②〉와 〈인터뷰 자료 ③〉을 보듯이 학습자들이 예상 반론을 쓰지 않은 것은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 의식과 인식이 부족한 데서 비롯

되었다. CKL24는 중국어 논설문의 영향을 받아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 의식이 부족하였다. CKL08은 반론 반박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 이와 같은 부족한 인식은 중국어 논설문의 장르적 특성의 영향과 한국어 논설문의 장르적 특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서 비롯되었다. 근거 생성이 어려운 원인에 대한 인터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인터뷰 자료 ④〉

연구자: ‘사실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적었는데 왜 그랬죠?

CKL13: 어떤 주장을 지지해 주는 근거를 찾을 때 적절하고 설득력이 있는 근거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연구자: 왜 그랬죠? 검색 키워드의 문제인가요?

CKL13: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쓸 만한 자료가 잘 없었을 것 같아요.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인정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자료요. 또 주제에 대해 잘 모르니까 검색의 난도도 높아지고 효율이 낮아져요. 중국과 한국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다를 수도 있어서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자료 ⑤〉

연구자: 설득력이 있는 근거를 쓰지 못한다고 적었는데 왜 그랬죠?

CKL28: 네, 관련 자료의 수집이 어려웠어요. 조기 외국어 학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장을 잘 논증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례도 찾지 못했어요.

연구자: 네, 자료를 찾기 어려운 것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CKL28: 저는 자료 검색의 방법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를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검색할 때 나온 자료는 거의 다 네티즌들의 관점들이었어요.¹⁰⁾

10) 연구자가 직접 네이버에서 조기 외국어 학습에 관한 자료를 검색해 봤는데 조사결과나 연

〈인터뷰 자료 ④〉와 〈인터뷰 자료 ⑤〉를 통해 ‘근거 생성하기’ 어려움의 원인은 해당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의 부족과 중·한 논증적 글의 근거 유형 차이, 그리고 낮은 주제에 관한 자료 수집 능력의 부족으로 확인되었다. 배경 지식이 부족하면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난도가 높아진다. CKL13은 관련 주제에 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정보 수집의 난도가 높아지고 효율이 낮아졌다고 하였다. CKL28도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 부족으로 근거 검색이 어려웠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중·한 논증적 글의 근거 유형 차이도 근거 생성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쳤다. CKL13은 중국인과 한국인이 인정할 수 있는 근거의 차이를 몰라 근거를 선택할 때 어려움을 느꼈다고 하였다. 또 CKL28처럼 네이버 등 검색 사이트의 활용법을 모르면 근거 수집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위와 같은 것으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논증적 글을 쓸 때 근거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내용 생성하기’ 어려움의 극복 전략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자료 검색’(50%)이 있었지만 만족스러운 자료를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학습자는 극복 전략이 없었다.

4. 내용 구성하기

‘내용 구성하기’ 어려움을 추출한 결과, ‘논증 전개 논리성’, ‘내용을 요약해서 표현하기’, ‘근거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접속부사의 사용’, ‘문단 나누기’ 등이 있었다. 추출된 각 어려움의 빈도수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내용 구성하기의 어려움

내용 구성하기의 어려움	빈도수	비율
논증 전개의 논리성	15	53.6%
내용을 요약해서 표현하기	8	28.6%

구결과가 많이 나왔다.

근거에 대한 분석 및 평가	2	7.1%
접속부사의 사용	2	7.1%
문단 나누기	1	3.6%
합계	28	100%

〈표 4〉에서 보듯이 ‘논증 전개’의 ‘논리성’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용을 요약해서 표현하기’가 그 뒤를 이었다. ‘근거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접속부사의 사용’, ‘문단 나누기’ 등이 빈도수가 적었다. 즉 중국인 학습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논리적으로 논증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며 찾아진 자료를 어떻게 요약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어려운 것이었다. 아래에서 학습자들이 적어둔 어려움을 살펴보자.

논증 전개의 논리성:

CKL12: 上下不通, 不连贯。(앞뒤가 통하지 않고 응집성이 떨어진다.)

CKL26: 条理紊乱, 不够清晰。(조리가 명확하지 않고 혼란스럽다.)

CKL28:

어려움: 不知道怎么论述好自己的论据。(근거를 어떻게 잘 논술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극복 전략: 参考网上其他人对相关事实的叙述。(해당 사실에 대한 타인의 논술을 참고한다.)

CKL31:

어려움: 写作时, 对文章结构有点困难, 有些话不知道放在哪一段比较合适。(글을 쓸 때 글의 구조가 어려웠는데 어떤 말을 어느 단락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극복 전략: 几个段落都试一下, 按照自己认为合适的放。(각 단락에 뒤 보고 자기가 보기에 적절한 단락에 둔다.)

CKL32: 逻辑比较乱。(논리가 혼란스럽다.)

위에 제시된 자료를 통해 학습자들이 ‘조리가 혼란스럽다’, ‘논리가 혼란스럽다’ 등이 빈번히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즉 학습자들이 어떻게 논증을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지에 관심이 많고 또 이것이 어려운 것으로 느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앞뒤의 연결, 응집성(coherence), 근거의 조직, 논리성 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것을 어려웠던 것은 인터뷰를 통해 글 구성 능력의 부족과 중·한 논증적 글 구성의 차이에 대한 미숙으로 확인되었다.

〈인터뷰 자료⑥〉

연구자: 글의 논리적 전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적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CKL08: 네. 예를 들어, 제가 찬성하는 주장을 정한 후 관련 자료들을 검색해 봤어요. 그 다음에 글을 써야 하잖아요. 글을 쓸 때 어떤 논증법으로 어떻게 논증을 전개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연구자: 그렇군요. 그럼 중국어로 글을 쓸 때에도 같은 어려움을 겪나요?

CKL08: 네, 그렇죠. 저는 글을 쓸 때 먼저 중국어로 쓰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 번역하거든요.

〈인터뷰 자료⑦〉

연구자: 글의 구조가 어렵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어려웠어요?

CKL31: 중국어로 각 단락의 내용을 계획하고 한국어로 쓰고 나서 어떤 말을 여기에 쓰면 좀 어색할 것 같지만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연구자: 왜 그렇죠? 혹시 중국어로 글을 쓸 때도 그래요?

CKL31: 아니요, 중국어로 쓸 때는 구조가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어로 쓸 때 중국어와 한국어의 표현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좀 잘 모르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평소에 한국어 논설문을 거의 본 적도 없고...

연구자: 중국어와 한국어의 표현방식이 다르다는데 ‘표현방식’이란 무엇을 가리키나요?

CKL31: 뭐 문장 표현, 단락, 논증의 전개 등과 같은 거예요.

위와 같은 인터뷰 자료에서 보듯이 CKL08은 중국어와 한국어로 글을 쓸 때 모두 글 구성의 어려움을 겪고 이는 글 구성 능력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비해 CKL31은 중·한 논증적 글 구성의 차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어로 글을 쓸 때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논증 전개의 논리성’ 어려움을 겪은 학습자가 많았지만 극복 전략을 가진 학습자는 2명밖에 없었다. CKL28은 ‘근거 논술’에 대해 인터넷에서 타인의 논술 방법을 참고하였으며 CKL31은 가끔 쓰려는 내용을 어느 단락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단락에 뒤 보고 자신이 보기에 적절한 단락에 둔다’는 전략을 해 보았다. CKL28과 CKL31은 각자의 전략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봤으나 나머지 학습자는 극복 전략이 없었다. 아래에서 ‘내용 요약해서 표현하기’의 예를 살펴보자.

내용을 요약해서 표현하기:

CKL05: 找到的真实事件等素材简短概括用到文章中很困难。(찾아진 진실한 사건 등 자료를 간결하게 요약하여 글에 쓰는 것이 매우 어렵다.)

CKL10: 整体结构和条理不够简洁明了。(전체구조와 조리가 간결하지 못하다.)

위에 제시된 자료에서 ‘간결하다’라는 키워드를 볼 수 있다. 즉 중국인 학습자들은 간결하게 내용을 구성하려는 인식이 있었다. 학습자의 어려움은 주로 근거를 요약하여 표현하기와 전체구조나 조리의 간결성에 있었다. 요약하기와 환언하기는 학문 목적 쓰기에 필요한 기능이라 본고에서 쓰기 과제에 반영하였는데 일부 학습자들이 요약하기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 요약해서 표현하기’ 어려움에 대해 모든 학습자가 극복 전략이 없었다.

5. 표현하기

‘표현하기’는 학습자들이 적어둔 것을 기반으로 어휘, 문법, 문장, 중국식 표현을 추출하였는데 빈도수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표현하기의 어려움

표현하기 어려움	빈도수	비율
문장	17	38.6%
어휘	15	34.1%
문법	10	22.7%
중국식 표현	2	4.5%
합계	44	100%

<표 5>에서 보듯이 중국인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문장 표현이다. 그 외에 어휘와 문법 사용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식 표현’을 의식한 학습자도 있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문장:

CKL09:

어려움: 把中文意思用准确恰当的韩语表达出来很难。(중국어의 뜻을 정확하고 적절한 한국어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극복 방법: 用翻译软件。(번역 앱을 사용한다.)

CKL24:

어려움: 写长句子困难。(긴 문장을 쓰는 것이 어렵다.)

극복 방법: 使用翻译软件。(번역 앱을 사용한다.)

CKL30: 长句子不会连接。(긴 문장을 연결하는 방법을 모른다.)

CKL32: 复杂的表达无法表达。(복잡한 표현은 하지 못한다.)

학습자들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정확하고 적절한 표현’, ‘긴 문장 쓰기’, ‘복잡한 표현’ 등이 있었다. 고급 학습자로서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서 벗어나 정확성과 적절성, 그리고 복잡성을 추구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비록 고급 단계의 학습자이지만 사회 이슈에 관한 내용을 고급 수준의 한국어로 표현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것이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일부 학습자(35.3%)가 번역 앱을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해결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번역 앱을 많이 사용하면 학습자들이 남용할 수 있고 문장 표현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아래에서 어휘와 문법에 관한 학습자의 어려움을 살펴보자.

어휘:

CKL21:

어려움: 词汇量不够, 想写的句子单词不会。(어휘량이 부족하고 쓰고 싶은 단어를 모른다.)

극복 방법: 查不会的词。(모르는 단어를 찾는다.)

CKL25:

어려움: 单词不会翻译。(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는지를 모른다.)

극복 방법: 查词典, 用翻译软件。(사전을 찾거나 번역 앱을 사용한다.)

CKL30:

어려움: 词汇表达上不能完全贴切本意, 词汇不够用。(한국어로 표현하려는 것을 정확한 어휘로 표현하지 못하고 어휘량이 부족하다.)

극복 방법: 查词典或翻译软件。(사전을 찾거나 번역 앱을 사용한다.)

문법:

CKL21: 写作时用的都是最简单和最基本的语法结构, 不会使用语法。(글을 쓸 때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문법 구조를 사용하였고 문법 사용을 잘하지 못한다.)

CKL24: 高级语法加不进去。(고급 수준의 문법을 사용하지 못한다.)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어휘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회 이슈에 관한 어휘를 모르는 것이다. 이는 평소에 학습자들이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잘 없고 관련 어휘도 거의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어휘 문제는 학습자들이 사전 사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문법의 경우, 학습자들이 고급 수준의 문법을 사용하려는 의지는 있었으나 CKL21처럼 표현 능력의 한계로 그렇지 못하고 간단하고 기본적인 문법만 사용하였다. 이는 논증적 글이라는 특정 장르의 상용 표현을 모르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되겠으나 전반적 한국어 능력의 부족이기도 하다.

위에서 논의한 바에 의하면 중국인 학습자들은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구성하기’, ‘표현하기’ 등 측면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학문 목적 쓰기에 필요한 요약하기, 환언하기, 분석 및 평가하기,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하기 등 기능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거나 인식이 부족하였다. 학습자들이 논증적 글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휘’ 외에 다른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전략이 없었다.

6. 교육적 시사

어려움 극복 전략 관련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전에 학습자들의 요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학습자 요구 분석

비록 학습자들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장 받고 싶은 어려움 극복 전략 지도는 ‘내용 생성하기’, ‘내용 구성하기’, ‘표현하기’에 집중되어 있다. 받고 싶은 어려움 극복 전략 지도에 대해 학습자들이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인터뷰 자료⑧〉- ‘내용 생성하기’ 어려움 극복 지도에 관한 요구

CKL13: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를 배우고 싶어요.

CKL15: 쓰기 전에 토론을 통해 관련 자료에 대해 서로 토론해 보고 관련 자료
도 검색해 보면 무엇을 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CKL28: 어떻게 근거를 검색, 선택, 조직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인터뷰 자료⑨〉- ‘내용 구성하기’ 어려움 극복 지도에 관한 요구

CKL02: 어떻게 논리적으로 근거를 조직하는지를 배우고 싶어요.

CKL10: 한국 논설문의 구조, 내용의 긴밀한 결합(응집성), 중·한 논설문 구조의
차이 등에 대해 배우고 싶어요.

CKL31: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글을 쓸 때의 사고 방식의 차이, 그리고 중·
한 논설문의 구조, 근거 제시 방식의 차이 등에 관한 내용을 가르쳐 주
셨으면 합니다.

CKL26: 구조를 어떻게 배치하는지, 주장을 어떻게 제시하고 근거를 어떻게 논
리적으로 제시하는지를 배우고 싶어요.

〈인터뷰 자료〉- ‘표현하기’ 어려움에 관한 요구

CKL02: 논설문의 상용 표현, 문형 등을 배우고 싶어요.

CKL10: 논설문의 상용 표현, 문형, 문법 등을 가르쳐 주셨으면 해요.

CKL24: 논설문의 상용 표현, 고급 표현 등을 배우고 싶어요.

학습자들의 요구를 어려움별로 보면 ‘내용 생성하기’에 대해 근거 검색
과 선택 방법, 중·한 논증적 글의 근거 비교, 토론을 통한 근거 생성 등이 있
었다. ‘내용 구성하기’의 경우, 한국어 논설문의 구조, 중·한 논설문 구조 비
교, 응집성, 조직 패턴 등에 관한 요구가 있었다. ‘표현하기’의 경우, 상용 표
현, 문형, 문법 등에 대한 지도를 요구하였다. 학습자의 요구 중에서 ‘내용 구
성하기’에 관한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것은 어려움 극

복 전략에의 교육 시사점을 제시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아래에서 학습자들이 글쓰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어려움 극복 전략 학습 요구를 바탕으로 ‘내용 생성하기’와 ‘내용 구성하기’를 중심으로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¹¹⁾

2) ‘내용 생성하기’의 교육적 시사

‘내용 생성하기’의 경우, ‘근거 생성하기’와 ‘반론 생성하기’를 중심으로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전술하였듯이 ‘근거 생성하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중·한 근거 유형의 차이와 학습자들의 정보 수집 능력의 부족이었다. 이에 대해 학습자들은 중·한 근거 유형 비교와 정보 수집 방법 지도를 요구하였다. 예상 반론의 수용과 반박의 경우, 학습자들이 예상 반론의 수용과 반박을 하지 않은 것은 예상 반론의 수용과 반박의 의식과 인식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인데 이는 궁극적으로 중국어 논증적 글의 영향과 한국어 논증적 글의 장르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특성 비교를 통해 한국어 논증적 글의 장르적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내용 생성하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2단계로 나누어 지도할 필요가 있다.

1단계에서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특성을 비교하고 장르적 특성이 다른 문화 배경에 대한 이해를 하게 한다. 맹강(2018)에 의하면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특성 중에서 근거 유형과 예상 반론의 수용과 반박에 차이가 있다. 근거 유형 비교를 통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중·한 논증적 글의 근거 유형의 차이, 그리고 실험결과, 통계자료, 문헌자료, 과학적 법칙, 전문가의 견, 상식적 사실 등은 중·한 논증적 글의 공통적 근거임을 인식하게 한다. 이

11) 익명의 심사위원이 ‘가장 지도가 긴요한 부분에 집중하여 보다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그리고 ‘표현하기’에서 상용 표현, 문형 등의 지도는 상대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내용 생성하기’와 ‘내용 구성하기’를 중심으로 하였다.

는 근거 선택의 기반이 된다. 또한 예상 반론 수용과 반박은 한국어 논증적 글의 필수 요소이며 반대 입장을 가진 독자의 체면을 손상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력을 높이는 것임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상 반론의 수용과 반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향상시킨다.

2단계에서 다양한 근거 수집 및 선택 방법을 지도해야 한다. 물론 근거 수집 및 선택 방법의 교육 필요성에 대해 의심될 수도 있다. 중국 학습자에게 근거 수집 검색 및 선택 방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을 거의 써 본 적이 없어 어떻게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는 앞에 제시된 인터뷰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인터넷 근거 검색을 예시로 설명한다면, 근거를 검색할 때 키워드를 잘 입력해야 한다. 예컨대, 체벌에 반대하는 이유로 ‘체벌을 받은 학생은 나중에 폭력 성향을 가질 수 있다’를 선택했다면 이에 관한 근거를 검색할 때 관련 조사결과나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체벌과 폭력 성향’을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다. 실제로 ‘체벌과 폭력 성향’이라는 키워드로 중국 바이두에서 검색하면 관련 보도 자료나 연구결과가 바로 나온다. 그 중에서 체벌과 폭력 성향이 상관관계가 있는 정보를 요약해서 쓰면 된다. 근거를 선택하는 원칙으로는 첫째, 중국인과 한국인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둘째, 권위성을 지녀야 한다, 셋째,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연구결과는 중국인과 한국인이 모두 인정하는 근거인데 관련 연구결과를 선택할 때 권위적인 기관의 연구결과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연구결과는 보편성을 띠고 있어야 한다. 지나치게 중국이나 미국 사회에 관한 것이라면 한국 사회에서 공인되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자료의 출처를 꼭 확인하고 글에 쓸 때 출처를 밝혀야 한다. Plakans(2009)와 조인옥(2014)에서는 중국 학습자들이 근거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3) ‘내용 구성하기’의 교육적 시사

‘내용 구성하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글 구성 능력의 부족과 중·

한 논증적 글 구조의 차이이다. 학습자의 요구로는 중·한 논증적 글 구조 비교, 한국어 논증적 글의 조직 패턴, 응집성 향상 등이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내용 구성하기’에서 겪는 어려움을 3단계로 나누어 극복하도록 지도하고자 한다.

1단계에서 중·한 논증적 글의 구조와 조직 패턴을 비교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중·한 논증적 글의 구조와 조직 패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게 한다. 중·한 논증적 글은 모두 서론-본론-결론의 거시구조를 갖고 있다. 조직 패턴으로는 중국어와 달리 한국어 논증적 글은 연역적 조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학습자로 하여금 인식하게 한 다음에 2단계에 들어가서 서론, 본론, 결론 쓰기를 지도한다.

2단계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세부적 지도를 해야 한다. 각 부분의 내용과 쓰기 방법을 예시를 통해 지도할 필요가 있다. 서론에서는 주제 도입과 주장 제시로 구성되고 간결해야 한다. 결론은 본론 내용을 요약하고 주장을 다시 강조한다.

본론은 논증적 글의 핵심 부분으로 논증 전개 패턴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진대연·김민애·이수미·홍은실(2006), 陈娟(2009), 赵효봉(2015)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병렬식으로 글을 전개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刘礼进(1999)에서는 병렬적 구조가 중국어 텍스트의 특성이라고 밝힌 것을 보면 이는 중국어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병렬적 구조는 쉬운 구조로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한국어로 글을 쓸 때 병렬적 구조를 취한 것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경희 한국어 쓰기(4, 5)>에 제시된 모범 논증적 글도 병렬식 구조를 취하였다. 따라서 글 구성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에게는 일단 병렬식 구조를 가르쳐 주고 난 후 다른 구조를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거시구조로 보면 본론은 ‘이유1+근거1 → 이유2+근거2 → 이유3+근거3 → 반론 수용과 반박(반박 이유+반박 근거)’로 구성될 수 있다. 각 단락 구조 역시 ‘이유1(주제문)+근거1+근거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처럼 연역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학문 목적 쓰기의 필수 기능인 요

약하기, 환언하기, 분석 및 평가하기,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하기도 이 단계에서 교수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응집성과 응결성(cohesion), 그리고 논리성을 지도해야 한다. 1단계와 2단계를 통해 한국어 논증적 글의 거시구조와 단락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논증적 텍스트의 응결성과 응집성, 그리고 논리성을 지도해야 한다. 응결성은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로부터 단락과 단락 간의 연결까지 지도할 수 있다. 응집성은 단락으로부터 글 전체까지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먼저 단락 내부에서 단락의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 삭제하는 연습을 할 수 있으며 각 단락에서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삭제한 다음에 글의 전체를 살펴보고 글의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삭제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논리성에 대해 전후 문장이나 내용이 서로 논리적인지를 점검하는 연습을 통해 할 수 있다. 교육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표 6〉 쓰기 어려움별 교육적 시사점

쓰기 어려움	교육적 시사점	
내용 생성하기	①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특성 비교	• 중·한 논증적 글의 근거 차이와 문화 배경에 대한 이해 • 예상 반론 수용과 반박에 대한 이해
	② 근거 수집 및 선택 방법 지도	• 다양한 근거 수집 방법 지도 • 근거 선택의 원칙 지도
내용 구성하기	① 중·한 논증적 글의 구조 비교	• 중·한 논증적 글의 구조에 대한 이해
	② 부분별, 단락별 구조와 쓰기 지도	•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와 쓰기 지도 • 각 단락의 구조와 쓰기 지도
	③ 응결성, 응집성, 논리성 향상 지도	• 문장 간, 단락 간 연결 지도 • 단락으로부터 글 전체까지의 응집성 지도 • 전후 내용의 논리성 점검 지도

〈표 6〉에서 제시된 교육적 시사점은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해 보았다. 위에 제시된 교육적 시사는 학습자의 쓰기 어려움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지

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시사점을 요약하고 예시를 들어 학습자에게 보내고 설문지에서 위와 같은 교육적 시사점의 효과성을 5점 척도로 나누었다. 학습자들이 교육적 시사점을 읽고 1~5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설문에 참여해 준 학습자 32명 중에서 ‘효과가 있다’(65.63%)와 ‘매우 효과가 있다’(28.13%)에 답해 준 학습자는 93.76%를 차지하였다. 평균 점수는 4.22점으로 높은 효과성을 보여 주었다. 즉 학습자들은 제시된 교육 시사점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학습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여 준다고 해서 학습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효과가 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교육 내용을 마련하여 실제적 교육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해야 한다. 이는 별도의 문제로 후속연구의 과제로 하기로 하였다.¹²⁾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논증적 글을 쓰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논증적 글을 쓰는 과정에서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구성하기, 표현하기 등 글쓰기의 전반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인 학습자가 가장 어려워한 것은 ‘표현하기’이다. 그리고 ‘내용 구성하기’와 ‘내용 생성하기’ 어려움도 겪고 있으며 ‘계획하기’

12) 본 연구의 초점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논증적 글을 쓰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극복 전략, 그리고 어려움의 원인을 밝혀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실험연구로 교육적 시사점의 효과성까지 검증한다면 연구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 그리고 효과 검증은 별도의 문제가 되어 엄밀한 실험 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효과 검증은 후속연구의 과제로 하기로 하였다.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적게 겪었다. 학습자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전 찾기’와 ‘번역 앱 사용하기’로 ‘표현하기’ 어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것 외에 다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표현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한국어 어휘와 문법의 부족과 고급 수준 문장 표현 능력의 부족에서 기인된 것이다. ‘내용 구성하기’에서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은 ‘논증 전개’의 논리성^{*}이었는데 이는 중·한 논증적 글의 구조 차이와 학습자들이 글 구성 능력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3단계를 거쳐 중·한 논증적 글의 구조 비교, 부분별, 단락별 세부 지도, 응결성과 응집성 향상 지도를 제안하였다. ‘내용 생성하기’의 주된 어려움은 ‘근거 생성하기’와 ‘반론 수용과 반박’인데 이는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 배경 지식의 부족, 정보 수집 능력의 부족 때문이며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특성 비교와 근거 검색 및 선택 방법 지도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 전략을 살펴보아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지만 학습자들의 글쓰기 과정을 관찰하지 못했다. 학습자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극복 전략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해 과정적 접근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즉 과정적 접근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의 논증적 글쓰기 과정을 관찰하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원인, 그리고 어려움 극복 전략을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다.

* 본 논문은 2020.4.30. 투고되었으며, 2020.5.14. 심사가 시작되어 2020.6.10.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김중섭·김정숙·이혜영·김선정·이정희(2010),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서울: 국립국어원.
- 김현미(2011), 「NIE를 활용한 한국어 쓰기 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맹강(2018),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교육 연구- '개입'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수현·정혜승(2015),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인식하는 대학 글쓰기의 어려움에 대한 분석」, 『작문연구』 26, 1-32.
- 송정윤·김경환(2016), 「초·중·고등학생의 글쓰기 어려움에 대한 인식 연구」, 『창람어문교육』 57, 97-131.
- 안상희(2012), 「대학 신입생의 리포트 쓰기에 대한 계열별 인식 연구」, 『리터러시연구』 5, 39-66.
- 유나(2017), 「중국인 유학생의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학습 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철민·김해인(2017), 「인문계열 대학생들의 리포트 쓰기 어려움에 대한 연구-대학 교양 강의 리포트 쓰기 활동을 중심으로」, 『리터러시연구』 20, 127-153.
- 이선영·박영지(2016), 「고급 단계 한국어 학습자의 논설문 쓰기 과제 수행 양상」, 『Journal of Korean Culture』 33, 149-173.
- 이정희·김중섭·조현용·장문정·윤세윤·김지영·양정애(2015), 『경희 한국어 쓰기 5』, 서울: 하우.
- 이정희(2015), 『경희 한국어 쓰기 4』, 서울: 하우.
- 장은섭(2014), 「초·중·고등학생들의 쓰기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새국어교육』 99, 173-208.
- 제효봉(2015),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텍스트에 나타난 모국어 영향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형길(2016), 「한국어 학습자 쓰기 과정에서의 수정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주희(2017),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학위 논문 작성 과정 연구: 참조 모델 활용과 조력자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인옥(2014),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논설 텍스트에 나타난 모국어 영향 특성 연구: 중국 산둥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진대연·김민애·이수미·홍은실(2006),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텍스트에 대한 대조 수사학적 연구」, 『한국어 교육』 17(3), 325-356.
- 최건아(2018), 「보고서 쓰기에서 대학생 필자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문제 해결 전략에 관한 연구-패러다임 모형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16, 113-142.
- 혼다 유나(2016), 「일본인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논설문 분석 연구-한일 논설문 텍스트 대조 수사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혜준(2008),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 연구: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서울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Enkhtuya (2017), 「몽골인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텍스트 분석과 교육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Grabe, W. & Kaplan, R. B. (1996), *Theory and Practice of Writing*, New York: Longman.

Plakans, L. (2009), "Discourse synthesis in integrates second language writing assessment", *Language Testing* 26(4), 561-587.

Williams, J. M. & Colomb, G. G. (2007), 『논증의 탄생』, 윤영삼(역), 서울: 홍문관(원서출판 2008).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어려움과 극복 전략 연구

— 중국인 한국어 전공자를 중심으로

맹강

본고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논증적 글을 쓰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극복 전략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학습자들이 논증적 글을 쓰는 과정에서 적어둔 어려움과 극복 전략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은 ‘표현하기’이고 사전과 번역 앱의 사용으로 극복해 봤다. ‘내용 구성하기’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논증 전개’의 논리성인데 이는 중·한 논증적 글의 구조 차이와 글 구성 능력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이다. 해결 전략으로는 3단계로 나누어 중·한 논증적 글의 구조 비교, 부분별, 단락별 쓰기 지도, 응결성과 응집성 향상 지도를 제안하였다. ‘내용 생성하기’에서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은 ‘근거 생성하기’이다. 이는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 학습자 배경 지식의 부족, 정보 수집 능력의 부족에서 기인된 것이라 2단계로 나누어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특성 비교, 근거 검색 및 선택 방법 지도를 제안하였다.

핵심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논증적 글쓰기, 쓰기 어려움, 극복 전략

ABSTRACT

A Study of Argumentative Writing Difficulties and the Coping Strategies of Chinese Korean Learners

—Focusing on Chinese Korean Majors

Meng Ga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ifficulties and strategies of Chinese Korean learners during the process of writing argumentative texts. To this end, the difficulties and coping strategies that learners recorded during an argumentative writing proces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s a result, the most difficult task for learners was *translating* which they overcame through dictionaries and translation apps. The greatest difficulty in organizing content was the logic of argument development. This is a matter of differences in the structures of argumentative texts in Chinese and Korean and of writing composition abilities. The solution was to divide the process into three steps: a suggested structural comparison of Chinese and Korean argumentative texts, writing guidance for each section and paragraph, and guidance for improving cohesion and coherence. The greatest difficulty for learners when trying to generate content was to generate evidence. This is due to genre differences between Chinese and Korean argumentative texts, learner's lack of background knowledge, and insufficient information gathering skills. These difficulties were overcome by dividing this process into two stages: we proposed a comparison of the genre characteristics of Chinese and Korean argumentative texts and a guidance for methods of evidence search and selection.

KEYWORDS Chinese Korean Learners, Argumentative Writing, Writing Difficulties, Coping Strategies